

發 明 小 史

自動用과워 스티어링

—美디바이스등이發明—

20世紀初 美國人 해리 빅커스와 프란시스 W 디바이스의 두사람은 油壓式스티어링(Steering)의 發明에 이어 그 發展의 貢獻者들이다.

빅커스는 빅커스會社를 設立하고 1925년부터 自動車用 스티어링과 高壓벤 펌프를 設計하였고 디바이스는 1926年 10월에 그가 개발한 油壓式스티어링을 實物로 만드는 한편 特許를 出願하였다.

이들 두사람은 1920年代 後半에 그들의 설계를 發展시켜 多數의 實驗의 裝置를 製作하였고 1930年代에 는 生産設備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빅커스는 少額의 改裝費로서 運行中の 車輛에 着設할 수 있는 부스터裝置가 實用的인 설비입에 着眼하고 이 장치를 大型自動車에 착설하기 위하여 1931년부터 製作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初期의 부스터장치는 缺陷이 없지 않았으나 이 장치는 디바이스에 의해 發明된 豫荷重스프링과 油壓反動力으로서 과워 스티어링(Power Steering)을 지닌 操縱者에게 道路에 대한 感覺을 알리기 위하여 作用되었고 또 車輪이 直進하는 位置로 되돌아 오게끔 작용도 하게 되었다.

디바이스는 또 現用과워 스티어링의 거의 전부에 使用되고 있는 連續油流오픈센터 밸브를 發明하였다. 디바이스의 모든 特許는 1931~33年사이에 取得되었고 G.M會社는 디바이스가 特許出願한 후 實施權契約을 맺었다. 그후 不況이 原因이 되어 同契約은 1933년에 破約하였으나 豫荷重스프링과 오픈센터 밸브에 관한 디바이스의 特許實施權은 1931년부터 빅커스회사에 許與되었고 餘他企業들도 1930年代 末期에 실시권을 縮約하였다.

乘用車에 처음으로 과워 스티어링을 導入한 企業은 크라이슬러로서 1951년에 디바이스의 오픈 센터 밸브와 油壓反動力을 採用한 겐머工業會社의 設計를 採擇한 것이다.

그후 G.M은 디바이스의 改良된 部分特許에 대하여 實施契約을 맺고 2년동안에 200萬臺分の 과워 스티어링을 生産하였다.

다시말해서 企業人 빅커스와 個人發明家 디바이스는 과워 스티어링을 實用化한 唯一한 功勞者들이다.

치스는 行商人이 發見

—古代그리스서 苦行끝에—

치스라고 하면 먼저 洋酒안주가 聯想되지만 실상 인즉 洋食에는 따르게 파르이다. 이 치스는 古代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食用되었으며 그 發明動機는 沙漠을 가로질러 行商하는 商人에 의해 偶然히 試食되었다는 傳說이다.

그 商人은 羊의 胃로 만든 水筒을 携帶하였으며 어느날 그 水筒에 牛乳를 가득채워 行상길에 올랐다. 曝陽이 내려쬐이는 사막을 하루종일 걸어 밤이 되었다. 이때 그는 우유를 마시려고 水筒을 기울인 바 한방울의 우유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水筒을 꺾어본즉 우유가 완전히 굳어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이 世界最初의 치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때부터 그리스에서는 치스는 神의 造化로 여기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僧侶들에 의해 그 製法이 研究와 더불어 오랜 歲月 傳播되었다.

또한 프랑스에는 「1村1치스」라는 俗言이 있을 정도이며 各國은 그들 나름대로의 치스를 만들고 있다.

알 립

鮮京合織 工業所有權講演會 開催

鮮京合織株式會社(代表:李起東)는 9月과 10月에 孫海雲 顧問 辨理士를 招請 本社와 水原 蔚山 工場에서 工業所有權에 관한 講演會를 開催했다.

社員의 資質向上을 위해 企劃部가 主管한 이번 講演會에서는 日本合織業界의 對韓出願傾向

파리協約加入과 우리나라 企業의 立場에 관한 講演이 있었다.

韓一合織 印度地域 展示會

韓一合成纖維工業 株式會社(代表:金翰壽)는 9月 27일부터 3日間 印度벵갈地域케르타에서 아크릴合成纖維展示會를 가졌다.

6月 25日 香港展示會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展示會에는 綿,

纖維, 服地, 衣類, 毛布 등 5部門 200餘種을 展示했다.

味元 工業用冰醋酸 適格判定받아

味元株式會社(代表:林哲洙)는 同社製品인 工業用冰醋酸의 性能 테스트結果, 韓國化學研究所로부터 그 品質이 國際水準에 이르는 PTA原料로서의 適格判定을 받았다.